



“KIA V10 축하합니다”

광주시가 26일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 벽면에 ‘기아 타이거즈 V10 145만 시민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올해 플러스 성장 가능성”

윤증현 장관 “3분기 성장률 놀랄만한 수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놀라운 수준이며 연간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세계경영연구원 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위기 이후 재도약 과제’ 특강에서 “3분기 성장률은 재정, 환율, 유가 등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Surprise’(놀랄만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7월까지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유지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점차 민간부분이 비중을 이어받아 회복세를 이끌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한다”면서 “민간 부분의 자생적 경기 회복력이 아직 미흡하고 고용 부진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방법으로는 “경제 회복이 공고화됐을 때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행해야 하며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 규모, 순서는 국가나 정책 형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우리나라 경제가 연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급격히 호전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해서 “성장 잠재력 약화 가능성과 지나치게 큰 대외의존도, 성장과 고용 관계,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여려면 단기적으로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부분에 대한 미시 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 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으로 “출산,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여성고령자의 근로 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건강보험, 주택, 문화 등의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콘텐츠진흥원 이전, 나주혁신도시 탄력

국토부 “혁신도시 건설 차질없이 추진” 통합기관·공기업 年内 이전지역 결정 전남도, 부지매입 등 조속 이전 촉구

정부가 ‘세종시 논란’과 맞물려 축소 및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 혁신도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 해양부는 26일 권도엽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관련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국토부는 우선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기관 간 통합이 이뤄진 기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정보통신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신설기관, 9개 대상 공기업의 경우 혁신도시 시 기능 재고 및 지역 간 협력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가급적 올해 안에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이 통합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장학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기관이 애초 가기로 했던 지역으로 핵심기능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폐합 문제로 아직까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계획 승인이나지 않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핵심 기능이 나주 혁신도시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며,

애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관끼리 통합된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조만간 이전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기로 한 정보통신진흥원과 애초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 계획이었던 인터넷진흥원과 통·폐합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아울러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부지매입 등을 독려하고, 특히 한국전력 등 주요 이전 대상 기관에는 올해 말까지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을 시작하도록 요청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나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예산을 확보하고도 부지매입 등에 나서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부지매입과 청사설계를 완료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최한배기자 cki@kwangju.co.kr

또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전 등 총 17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며, 이 중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관의 이전 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부지매입이나 청사설계를 확보한 기관은 한국전력과 한전 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연수원, 전파연구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 등 10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만9천여㎡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이 변전소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음 뿐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했다.

또한, 청사 설계 발주가 들어간 곳은 한전과 전파연구소 등 2곳에 불과하다.
/최한배기자 cki@kwangju.co.kr

3분기 경제성장률 2.9% ↑

7년 6개월만에 최고치...1년만에 플러스 전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9%를 나타내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재고투자의 감소폭이 급격하게 줄어든 데다 수출과 소비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생산도 증가했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0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는 2002년 1분기의 3.8% 이후 최고치이다.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0.6%를 기록하면서 작년 3분기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개선된 것은 제조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서비스업도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생산 호조로 전기 대비 8.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운수 보관업 및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토목건설 분야의 영향으로 0.5% 감소해 2분기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지출 측면에서 재고투자의 감소폭이 많이 축소된 데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민간소비는 승용차에 대한 소비지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의료, 오락문화, 의료보건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 전기 대비 1.4%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이 전분기의 3.6%에 비해서는 둔화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수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모두 확대돼 전기 대비 8.9%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분야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2.1%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5.1% 늘었지만, 전분기의 14.7%에 비해서는 줄었다. 수입은 8.4% 증가하면서 전분기의 7.4%를 웃돌았다.

한은은 4분기 GDP가 3분기 수준을 유지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亞신화·설화 문화수도 자산된다

한국·중앙亞 5개국 스토리텔링 위원회 구성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화와 설화가 광주 문화수도의 문화산업 콘텐츠로 개발된다.

2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28일~29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제2차 한-중앙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앙아시아 스토리텔링 위원회(이하 스토리 텔링 위원회) 창설 선포식’이 열린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위원회’는 서구 중심의 신화·설화가 아닌 아시아권의 옛 이야기를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연구 결과물인 신화·설화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내 5개원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정보문화원에 디지털 자료로 축적한 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창작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스토리텔링 위원회의 본격 운영을 위해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 공동 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활동 계획을 협의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스토리텔링 위원회의 활동으로 연계될 아시아의 신화와 설화는 광주 문화수도에 문화산업을 뿌리내리는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